



### 거장의 '페르소나' 송강호

# "22년 전 그 '까까머리' 봉준호 '뭐가 되도 되겠구나' 생각했다"

1997년 '초록물고기' 보고 나중에 작품 함께하자 말해 정중함과 예의 바름이 '물씬' '살인의 추억' 등 4편 찍어 촬영장의 거대한 산 그림자 어떤 연기도 받아줄 것 같아



봉준호 감독(왼쪽)과 배우 송강호가 28일 열린 영화 '기생충'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봉준호 감독과 처음 만난 뒤 '뭐가 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9일 오후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마주한 배우 송강호(52)는 20여 년 전 봉 감독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극 무대에 주로 선 송강호가 영화 '초록물고기'로 대중에 얼굴을 알리던 시기였고, 봉 감독은 영화 '모텔 선인장'의 각본과 조연출을 맡았을 때다.

"봉 감독이 '초록물고기'를 보고 팬 입장에서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 마포에 있던 영화사 사무실에 잠시 들렸어요. 그때 미래의 거장이 될 봉준호, 장준환 감독, 두 분이 까까머리를 하고 대학생 같은 느낌으로 앉아있었죠. 두 사람이 '모텔 선인장' 연출부라는 것은 나중에 들었어요. 그때 차를 마시고 헤어졌는데, 봉 감독이 나중에 '베베'에 녹음을 남겼어요. 나중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정중함과 진심 어린 존중, 예의 바름이 물씬 묻어났죠. 그 녹음을 공중전화에서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에서 '나중에 뭐가 되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송강호의 예상대로 봉 감독은 20여년 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거장이 됐고, 그는 거장의 페르소나가 됐다.

송강호는 봉 감독과 영화 '살인의 추억'(2003)부터 '괴물'(2006), '설국열차'(2013)에 이어 '기생충'까지 네 작품을 함께했다. 누구보다 봉 감독 작품세계를 잘 아는 그는 '기생충'이 '봉강호 월드' 최종점인 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봉준호의 페르소나라는 수식어에 대해선 "과분한 칭찬"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믿고 보는 배우" 송강호는 '기생충'에서도 입체적인 연기를 선보인다. 그가 맡은 배역은 생활고 속에서도 돈독한 가족애를 지닌 4인 가족의 가장 기택이다. 직업도, 대책도 없어 아내 충숙(장혜진)에게 늘 잔소리를 듣지만 매사 긍정적이다. 아들 기우(최우식)가 부잣집 과외선생이 되자 삶의 희망을 품어보지만,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초반에 평범한 가장 역을 우화처럼 연기하지만, 클라이맥스에서는 감정을 폭발시킨다.

송강호는 "이 작품은 장르 영화의 틀을 갖고 있지만, 혼합장르여서 탈경거리

지 않게 유연하게 연기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는 기택을 연체동물처럼 유연하게 파고들려고 했다"고 떠올렸다.

송강호는 "세상에 절대 선악이 없는 것처럼 기택 역시 선인도, 악인도 아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며 "초반과 중후반 이후 감정의 흐름도 변화나 각성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운전사' '마약왕' 등에서 단적으로 극을 이끈 송강호는 '기생충'에서는 이선균·조여정·최우식·박소담·장혜진 등 후배 배우들과 앙상블을 이뤘다. 모두가 주인공으로 느껴질 만큼 누구 하나 뒤처지는 배우들이 없다.

송강호는 "봉준호라는 거대한 산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니 어떤 연기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았다"면서 "다른 좋은 배우와 협업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

이었다"고 회상했다.

송강호는 이번 칸영화제에서 '유력한 남우주연상 후보였다'는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 심사위원장의 말을 봉준호 감독에게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내가 상을 안 받아서 정말 다행"이라며 "상은 하나밖에 안 주는데, 당연히 황금종려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송강호는 '수상 요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2007년 '밀양'(여우주연상), 2009년 '박쥐'(심사위원상)에 이어 '기생충'(황금종려상)까지 그가 칸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을 때마다 모두 상을 받은 덕분이다. 그는 "천만 요정"이라는 말을 들어봤어도 '수상 요정'은 처음 들어본다"며 활짝 웃었다.

송강호는 오는 7월에는 영화 '나랏말싸미'로 관객을 찾는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다. /연합뉴스

### "공주처럼 살다 보면 자존감도 높아져요"

'로마공주 메이커' 솔비  
웹예능 내달 6일 공개



가수 겸 작가로 활동하는 솔비(본명 권지안·35·사진)가 라이프타임 웹 예능을 통해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솔비의 로마공주 메이커'는 솔비가 지닌 '로마공주'라는 애칭과 이미지를 활용해 다양한 영역에 도전하고, 이를 통해 능력을 쌓아가는 모습을 게임처럼 담아내는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이다.

솔비는 29일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에게 당당한 여성이 되기 위해 응원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화 속 보편적인 공주가 아닌, 자존감 높고 당당하게 말하는 새로운 현대판 공주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그의 다짐이다.

"제가 살고 있는 방식이 현대판 공주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당당하게 살아왔던 것인데, 이 방식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모습을 더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많은 분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는 "무엇을 도전하든 맨몸 중간 정도는 잘하는 것 같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정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데뷔 13년 차인 솔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 달 6일 오후 5시 유튜브 등 라이프타임 디지털 채널에서 공개. /연합뉴스

준을 세워서 산다. 미술, 음악을 통해 표현을 다채롭게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솔비는 프로그램을 통해 녹음 판매 지원, 애견 유치원 스텝, 성교육 강사 등 이색 분야에 도전한다.

그는 "무엇을 도전하든 맨몸 중간 정도는 잘하는 것 같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정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데뷔 13년 차인 솔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 달 6일 오후 5시 유튜브 등 라이프타임 디지털 채널에서 공개. /연합뉴스

### 방시혁, 2년 연속 '빌보드 세계 음악시장 리더' 선정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47·사진) 대표가 세계 음악 시장을 이끄는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International Power Players)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미국 빌보드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 104인 명단에서 방 대표를 음악 제작(Recording) 부문 파워 플레이어로 소개했다.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는 2014년부터 빌보드가 매년 세계 음악 시장을 이끄는 리더를 선정해 공개하는 리스트다. 올해는 방 대표와 함께 라이브네이션

유클 존 레이드 대표, 워너뮤직그룹의 스투 벌겐 대표 등 세계음악계 유명인사가 뽑혔다.

빌보드는 방 대표를 "방탄소년단을 '빌보드 아티스트

100'과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려놓고, '러브 유어셀프 :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 SPEAK YOURSELF) 스타디움 투어를 매진시킨 지휘자"로 소개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전국시대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0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단, 하나의 사랑(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원소잡이 아내(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특목 보합설계
13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이사 콩도령 2		25 푸리키 식사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	20 시노스톤 50 UHD 승터(재) 55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15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침착한 주말 4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스페셜	
16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45 이몽(재)	00 뛰뛰빵빵 로그인 코리아 55 닥터 365
17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8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정글의 법칙(재)
19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원소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쇼
20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불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1	00 KBS 뉴스9			
22	00 KBS 스페셜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00 절대 그이
23	35 UHD 승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색선 TV 연예통신 1~2부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24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스포츠 다이어리 30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05:30 통일의 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다큐동화 달팽이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00 레이디버그
07:15 띠띠뽀 띠띠뽀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40 다큐 시선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4:30 띠띠뽀 띠띠뽀(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덩동댕 유치원1~2	14:4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남만 동유럽 4부에는 멋진 날 크로아티아>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15:00 탐험 구조대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섬마을 밤길 4부 땃다 바다 위의 맛길>
09:00 마사와 곰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21:50 다큐 시선
09:30 물랑	16:00 예술아 놀자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25:10 과학 다큐-비온드(Beyond)
10:30 한국기행(재)	16:30 덩동댕 유치원1~2(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0일(음 4월 26일 丁卯)

<p>36년생 결정타를 때릴 때가 왔습니다. 48년생 예비분의 확보가 꼭 필요한 판세에 놓여 있다. 60년생 구부러지는 것이 아예 부러지는 것 보다는 백 번 낫다. 72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 들어라. 84년생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30, 18</p>	<p>42년생 외형이나 수효를 의식하지 말라. 54년생 말길에 신중하라. 66년생 속단은 금물이나 차분하게 생각 할 일이다. 78년생 이렇듯 저랄까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받아들여도 별 탈이 없다. 90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01, 59</p>
<p>37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기자. 49년생 시시각각 변화하는 판국이니 형세의 범위를 조절하라. 61년생 작용의 씨앗이 발생한다. 73년생 깊이 있게 관찰하면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5년생 유동적인 변수가 매우 크므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 두자. 행운의 숫자 : 14, 41</p>	<p>43년생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러라. 55년생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익이 없도다. 67년생 터놓고 논 치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할 판세이다. 80년생 흑과 백이 무난하겠다. 91년생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될 것 일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04, 44</p>
<p>38년생 견문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택은 신중히 하라. 50년생 재고할 필요가 있느니라. 62년생 판세에 맞지 않는다면 부작용만 속출한다. 74년생 관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것이니라. 86년생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상책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9, 36</p>	<p>44년생 예상치 못한 번민에 휩싸일 수도 있느니라. 56년생 목적하는 바를 도모할 수 있다. 68년생 모든 것을 차지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할 판세이다. 80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라. 92년생 느슨해진다면 참으로 끈관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50</p>
<p>39년생 작은 것을 소중히 다뤄야 큰 것을 얻는다. 51년생 뜻밖으로 이중 또는 삼중의 행운이 따르리라. 63년생 유리하게 전개 될 수 있는 마당이다. 75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 87년생 기준이 없다면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2, 32</p>	<p>45년생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만 성사 될 것이다. 57년생 해묵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69년생 진입하는 분기점에 와 있다. 81년생 바야흐로 길운이 한창 피어나는 때이니라. 93년생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36, 76</p>
<p>40년생 파격적인 판국이 조성되리라. 52년생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저 소모적인 뿐이다. 64년생 일반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76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8년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조로우리라. 행운의 숫자 : 77, 93</p>	<p>34년생 당분간 평탄하고 순조로운 판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46년생 노력을 경주한다면 대단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58년생 사람들의 만남이 유익하다. 70년생 사정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 하자. 82년생 특수한 관계로 전환 될 수도 있어서 변화무쌍하다. 행운의 숫자 : 50, 83</p>
<p>41년생 커다란 재앙의 불씨가 보인다. 53년생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깊이 보면 의미가 없음을 안다. 65년생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 관점이다. 77년생 앞만 보고 진행하면 무난하다. 89년생 행운의 별이 비취오고 있으니 길하리라. 행운의 숫자 : 81, 34</p>	<p>35년생 훨씬 앞당겨져서 처리되는 세계이다. 47년생 적격이 아니니 미련을 버리는 것이 옳다. 59년생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고차원적인 단계로 가고 있는 길목이다. 83년생 집착을 버릴 줄 아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1, 66</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